돈의 흐름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오무라 오지로 지음, 신정원 옮김

"돈의 흐름을 알면 역사가 읽히고, 세상이 보인다."

"근현대란 어떤 시대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별로 없다. 학창시절 이 부분에 할애된 시간이 짧은 탓도 있지만, 이 시기에 복잡한 사건들이 뒤엉켜 있어 공부하기가 수월치 않은 때문이다.

대체로 역사 공부는 '사건' 위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사건을 토대로 정치와 전쟁을 엮어내는 식이다. 그러나 발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의 흐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보면 역사의 맥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이후의 냉전시대, 석유 파동, 중국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까지 세계 근현대사를 돈의 흐름을 매개로 조망한 책이 발간됐다. 과거에서 현대, 미래의 세계정세와 경제 구도를 꿰뚫어본다는 의미다.

일본의 비즈니스 분야의 자유기고가인 오무라 오지로가 펴낸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는 세계 근현대사를 돈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저자는 복잡한 사건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근현대사를 명쾌하게 풀어낸다. 책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돈의 흐름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근현대사의 맥락이 좀 더 명쾌하게 보인다고 주장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작금의 세계는 머니게임이 불러일으킨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IT 버블붕괴나 리먼 사태 등으로 불황사태를 겪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다. 여기에 빈부격차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저자는 세계 각국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금, 석유, 달러를 둘러싼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이런 현상은 점차 가속화, 확장되고 있다. 바로 돈이 권력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제라는 것이다.

그 예로 'IS'를 언급한다. 'I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아랍권과의 달러를 둘러싼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아랍권이 석유를 거래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라크 후세인은 석유 결재 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변경했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과적으로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후세인 대통령 시절 이라크에서 중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IS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IS는 테러집단치고는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국가 체제를 이루었으며, 이라크의 유전 몇 곳을 장악하고 무기 공장, 상점, 학교와 같은 인프라까지 갖춘 것이다. 결론만 놓고 보면 미국에 의해 붕괴된 국가의 잔당이 IS를 세워 다시 미국과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까지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 저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주시한다. '가장 빚이 많으면서도 가장 거드름을 피우는 국가'인데 세계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AIIB을 들 수 있다. 아태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이 가입을 표명했다.

저자는 "중국의 무역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지닌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을 할 때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쓰게 될 경우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앙 피하려면…지구의 절반 자연에 내줘라

지구의 절반

애드워드 윌슨 지음, 이한음 옮김

"파괴라는 경로를 선택한다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이 인류세를 향해 계속 추락할 것이다. 지구가 거의 오로지 우리 자신에 의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만의 행성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최종 시대 말이다. 나는 이 시대를 고독의 시대라는 뜻인 '에레모세'라고 부른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오늘의 지질 시대를 지칭한다.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기후변화에 직면했다는 주장에서 기인한다. 인류에게 닥칠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가 환경 문제다. 특정 국가와 특정 대륙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작금의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큰 파고 앞에 직면해 있다. 한파와 폭설, 폭우 등은 기후가 인류에게 재앙을 끼일 수 있는 강력한 요소임을 말한다.

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구의 절반을 자연에 위임하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세계적인 자연사 학자이자 미국 학술원 회원인 애드워드 윌슨이 전 지구적 처방을 내렸다.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자 퓰리처 상 2회 수상자인 저자의 탁월한 통찰은 '생명 세계의 정지기'라는 인류에게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애드워드 윌슨이 펴낸 '지구의 절반'은 인류의 대응책을 전 지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책은 지구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생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문제'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 불리는 사건이 임박했다는 암울한 진단에서 시작된다. 앞서 벌어진 다섯 번의 대멸종과 다른 점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서식지를 파괴하고 침입 종을 확산시켜 생태계를 교란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그로 인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남획으로 "여전히 거의 알려지지 않은 행성" 지구에서 생명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제2부 '진짜 살아 있는 세계'에서는 살아 숨 쉬는 생물들을 현장에서 대하는 자연사 학자들의 연구를 접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자연사 학자 18명과 함께 선별한 "생물권 최고의 장소" 15군데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레드우스 숲, 아마존 유역, 남아메리카 대서양림 등을 소개하며 전 지구적으로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3부 '해결책'에서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타성은 인간 개체 사이에서뿐 아니라 다른 종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성향 '바이오필리아'라는 것이다.

즉 생태학적 실천의 단초가 바로 통섭적 사유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재벌개혁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 저자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이 결코 재벌을 옥죄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재벌개혁은 적폐 해소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이는 촛불 혁명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꾸준하게 재벌개혁 이슈에 매달려온 이유이며, 이 책은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국 경제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메디치미디어·1만6000원〉

▲아티스트로 살아남기=미술 전공자로 살려면 현실적인 문제를 포기해야 할까? 남들 같은 재주가 없다고 붓을 놓아야 할까? '가난하지 않으면 화가가 아니다'라는 통념은 버리자. 아티스트로 살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다만, 그 길을 알지 못했거나 찾지 않았을 뿐. 남들처럼 할 수 없다면 남들과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화가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좌절하거나 미술시장에 진입하는 길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다북스·1만500원〉

▲이별이 떠났다=아빠 없이 홀로 아이를 낳고, 자기 삶도 성공하겠다는 20대 초반의 당찬 정효와 결혼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다 자기 이름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50대의 영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 두 주인공은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 딸로, 그리고 여자로 억눌린 삶을 살아온 여성을 잘 표상하는 캐릭터이다. 과연 정효와 영희는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새잎·1만8000원〉

▲지구별 오디세이=이 책은 여행 철학에 관한 저자의 상념을 특별한 체계 없이 서술한 여행 에세이다. 삶과 동떨어진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이 아닌 개인의 인생 경험을 반추한 생각들을,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반박할 수 없게 제시한다. 저자는 6년이 넘는 오랜 시간 지구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 셀 수 없이 많은 문화, 무수히 많은 동식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탐구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기록된 찰나의 깨달음들이 이 책이 되어 세상의 빛을 보았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기 산호 플라눌라=거대한 산호초에서 탄생한 작은 아기 산호 플라눌라는 정착할 곳을 찾아 바다를 여행한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1년에 1cm씩 천천히 자라서 커다란 군락, 산호초를 형성해서 바닷속 생명들을 품게 된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산호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산호를 위해, 이 지구의 자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봄봄·1만3000원〉

▲종우화분=아이들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해한 동시 모음집. 이 시는 전학 간 친구가 두고 간 화분을 보살피며 친구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아이들에게 친구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게임 이야기, 집에 갈 때 같이 가자는 이야기, 엄마한테 야단맞은 이야기, 학원 선생님 이야기 등 어른들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제비꽃 마을의 사계절= 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 들쥐 '쥐콩'과 다람쥐 '따로'의 일상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아기자기하게 펼쳐진다. 다채로운 의성어, 의태어가 말의 재미를 익히게 하며, 유년 동화답게 문장의 운율과 호흡이 자연스러워 소리 내어 읽어 주기에 알맞다. 화가 김슬기의 붓 끝에서 탄생한 동물 캐릭터들은 더없이 사랑스럽다. 개성의 존중이라는 긴요한 주제 의식을 유년 독자의 눈높이로 다루어 어린이에게 권하기 좋은 동화다.

〈창비·9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외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악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 · 가방 · 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궁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한솥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타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육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전방
동구 궁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